

“민족대표 33인 모두 종교인”... 임시정부 100주년 강조

文 대통령, 7대종단 지도자 초청

“서울·평양 등 최초 3·1 만세시위 각지 종교서 하나된 후 국민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첫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관 인왕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낮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앞서 독립선언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근 회장, 문 대통령,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이정희 교령,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성균관 김영근 관장. /연합뉴스

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라고 운을 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초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

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및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또 3·1절 오후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

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이라고 고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이정희 천도교 교령·박우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김영근 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이용마’ 비공식 문병에 ‘김용균’ 유족 만나

文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 강력

이용마, 폐복에 文의 문병소식 알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용마 MBC 기자 문병’에 이어 18일 ‘김용균 유가족 만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돋보이는 행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이 기자 문병 행보다. 2017년 MBC에 복직한 이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2016년 복직판정을 받았다. 현재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병 소식은 이 기자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즉 문 대통령의 문병 일정은 비공개 일정이었던 것이다.

이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갔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 그지없다”며

“(문 대통령은 문병 당시) 재벌 중심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 (또)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가 언급한 ‘복지확충’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연관이 깊다. 이 계획은 소득보장·사회서비스·고용·건강보장 등 분야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김씨 유가족의 청와대 초청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김씨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김씨 아버지 김해기씨, 이모 김미란씨, 박석은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다가 안전장비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애도의 뜻과 함께, 관계부처를 향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도 정중히 위로의 뜻을 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김씨 유가족 및 노동단체와 가졌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영입인사인 김빈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은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틀간 일정(이 기자 문병 및 김씨 유가족 만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를 상징하는 행보로 보여진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文 대통령 지지율 0.6%p 하락... 49.8%

부정평가도 1.4%p 떨어져 44.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을 의미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다. 이는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하자마자 40%대 후반으로 내려간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1.4%p 내려간 44.0%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역전세난’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 대통령 경제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실업률 상승과 역전세난 등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2년간 전셋값 하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승준 기자



행안부-SKT, 데이터 경제 활성화 MOU 관동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SKT본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SKT,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與野, 2월 임시국회 또 물건너가나

與 “일단 조건없이 국회 소집해야”
野 “합리적 조건 여당서 수용안해”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헤어졌다.

앞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동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 정상화 요구를 거부했다.

방미 일정 당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합리적 수준의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또 “요구를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주장을 펼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경우 현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관심이 쏠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감·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과 중진 노웅래 의원 등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외부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손해된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개최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1월 농식품 수출 5.8억 달러 ‘역대최대’

농식품부, 전년비 5.9%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딸기와 김치, 라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5억7600만 달러(6488억여 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4400만 달러(6118억여원) 보다 5.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14.4%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던 가공식품도 3.9% 증가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선농산물은 딸기·파프리카 등 채소

류와 인삼·김치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해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딸기는 주요 수출 시장인 홍콩·싱가포르·베트남 등지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삼은 중국 춘절을 겨냥한 선물용 홍삼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김치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 ‘이온리테일’ 판촉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은 음료·라면·조제분유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동 지역 연초류 수출 감소 폭이 둔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났다.

/세종=최신웅 기자